

国家外语非通用语种本科人才培养基地系列教材

国家级教学成果二等奖获奖项目系列教材

韩国语 阅读教程

Korean Extensive Reading

主 编 张光军

능력시험 주관
이 시험은 대한민
진해온 양해 각서
내 기업 취업 희망
희망자들을 선발
하기 위한
해당 국가의 국
가 지 난 해 추
동부가
정되었습
니다.

解放军外语音像出版社
PLA Foreign Languages Audio-Video Press

①

韩国语阅读教程

主 编 张光军

副主编 吕春燕 杨 彦

解放军外语音像出版社

PLA Foreign Languages Audio-Video Press

学习与授课提示

阅读课传统上又称为泛读课，是外语学习中的一门重要课程，一般在大学二、三年级开设。

阅读课的设课目的：

1. 学习不同文化背景的对象国国情知识，
2. 学习一些常用的外语词汇和语法知识，
3. 培养快速阅读外文语料的能力，
4. 培养分析问题综合情况的能力。

本教材在编写时注意了以下几点：

1. 增加课文篇幅，加大阅读量。第1课1700余字，第15课达到2600余字。
2. 将每三课设为一个单元板块，分门别类系统地介绍韩国国情文化知识。
3. 编配必要的词汇语法注释并配有例句，为学生吸收语言知识提供便利。
4. 编配形式多样的习题，以便学生通过练习加深对课文重点知识的理解。

另外，在每课课文之后还设立了一个小栏目—커피숍（咖啡馆），用妙趣横生的语言介绍韩国的小知识，在紧张的学习氛围中添加一点轻松和愉悦。

由于大学一年级主要开设精读课，到二年级精读课还占有相当大的

课时比重，学生比较适应精读课的学习，往往会用学习精读课的方法学习阅读课。请老师引导学生改变学习方法，培养从大量外文语料中获取信息的能力。也就是说，不需要像精读课那样字斟句酌地去学习每一个单词的含义，掌握每一条语法的用法，理解每一个句子的意思。

本教材每册编选15课，按照每周一次、每次两节到堂课授课，可以使用一个学期。考试形式可以参考课后的练习题方式。

本教材为授课教师提供练习题参考答案。

编 者

2005年仲夏于解放军外国语学院

目 录

제1과 속담 이야기(谚语故事).....	1
제2과 옛날 이야기(古代故事).....	11
제3과 신화와 전설(神话和传说).....	21
제4과 한국인의 기본예절(韩国人的基本礼节).....	32
제5과 통과례(1)(韩国人的生活礼仪).....	43
제6과 통과례(2)(韩国人的生活礼仪).....	54
제7과 한국의 명절(韩国的节日).....	65
제8과 한국의 민속놀이(韩国的民俗游戏).....	79
제9과 국경일·기념일(国庆日·纪念日).....	93
제10과 서울(汉城).....	104
제11과 경주(庆州).....	117
제12과 제주도(济州岛).....	130
제13과 한반도의 자연환경(韩半岛的自然环境).....	141
제14과 한국인의 의식주 생활(韩国人的衣食住).....	151
제15과 한국의 국가상징(韩国的国家象征).....	162
索引(찾아보기).....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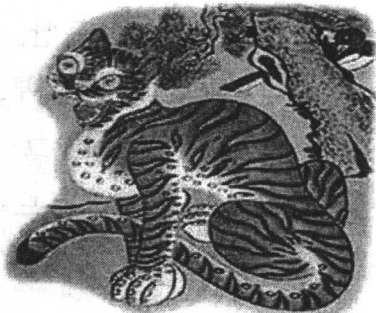
제 1 과 속담 이야기

1. 호랑이 꼬리

옛날 한 선비가 과거를 보려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었다. 선비는 오래 걸어서 다리가 몹시 아팠다. 그래서 선비는 산속에서 좀 쉬고 있었다. 선비가 큰 바위 아래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다시 길을 떠나려고 곁에 놓은 지팡이를 찾는데, 손에 이상한 것이 잡혔다. 그것은 호랑이의 꼬리였다. 그 호랑이는 너무 커서, 저 쪽 큰 바위 뒤에 호랑이가 누워 있고, 꼬리는 두 바위 사이로 해서 선비가 있는 데까지 와 있었다. 선비는 깜짝 놀랐다.

이 때 잠자고 있던 호랑이는 그 누군가 자기 꼬리를 덤석 쥐는 통에 눈을 번쩍 떴다. 그 순간 선비는 무서워서 두 손으로 호랑이 꼬리를 꼭 잡았다. 호랑이는 꼬리가 나오지 않아서 “으르렁, 으르렁”하고 소리만 냈다. 선비는 있는 힘을 다해서 꼬리를 잡고 있었다. 선비의 온 몸에서는 땀이 흘렀다. 선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찢찢매는데, 그렇다고 놓으면 호랑이가 단박 자기를 잡아먹을 성싶었다.

바로 이 때, 저 쪽에서 한 중이 오고 있었다. 선비는 “사람 살려!” 하고 소리쳤다. 그리고 그 중에게 “스님, 스님, 저기 저 지팡이로 호랑이를 죽여 주십시오.”하고 부탁했지만, 중은 “불교에서는 살생을 할 수 없습니다.”하고 그냥 가려고 했다. 선비는 중에게 “호랑이는 제가 죽이겠습니다. 잠깐만 이 호랑이 꼬리를 대신 잡아 주십시오.”하고 애





원을 했다. 그래서 중은 호랑이 꼬리를 잡았다. 선비는 일어나서 지팡이를 들고 말했다. “저도 살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고 떠나려고 했다. 중이 “약속이 틀립니다.”하고 화를 냈지만, 선비는 중을 그곳에 남기고 떠났다.

날이 가고 또 갔다. 깊은 산 속에는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아마 그 중은 지금도 거기서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을 것이다.

2. 시집살이

옛날 어떤 집에 예쁜 딸이 하나 있었다. 그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 결혼을 했다. 어머니는 딸에게 “시집살이를 잘 하려면, 무슨 말을 들어도 못 들은 것 같이 하고, 무엇을 보아도 못 본 것 같이 하고, 말이 하고 싶어도 말하면 안 된다.”하고 부탁을 했다.

딸은 늘 어머니의 부탁을 생각하고 삼 년을 보냈다. 이런 며느리를 보는 시집 식구들은 처음에는 불쌍하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바보로 생각하게 되었다. 시집 식구들은 며느리를 귀머거리, 장님, 병어리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만, 며느리는 시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시아버님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며느리의 눈 앞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집살이를 잘못해서 쫓겨나는 것은 여자에게는 제일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시집살이를 잘 하려고, 삼 년을 귀머거리, 장님, 병어리로 산 것도 사람으로는 참기 어려운 일인데,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으니까 며느리의 마음은 몹시 아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부모님이 계신 집 가까운 숲에 도착했다. 숲만 지나면, 보고 싶은 부모님과 형제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는 며느리는 기뻐다. 그 때 저 쪽 숲 속에서 땡 한 마리가 사람이 오는 소리에 놀라서 “푸드득” 날았다. 이것을 먼저 본 며느리가 “아버님, 저기 땡이 날아가요.”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시아버님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시아버님은 “며느리가 땡이 나는 것을 보았으니까



장님도 아니고, 꿩이 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귀머거리도 아니고, 또 말을 했으니까 병어리도 아니군!”하고 혼자 생각하고 기뻐다.

이렇게 해서 며느리는 다시 시집으로 돌아왔고, 시집 식구들은 그 동안의 일들을 미안하게 생각했다. 며느리는 숲 속에서 잡아온 꿩을 요리할 때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는 매운 시집살이를 노래한 것으로, 지금까지도 불려오고 있다.



㊤ 韩国的俗谈 ㊤

俗谈(속담)是一个国家和民族的传统文化、风俗习惯等在语言上的集中表现。韩国的俗谈数目庞大，内容丰富。据不完全统计，仅在日常生活中较为常用、广为人知的俗谈就有 5000 余条，再加上一些较特殊、生僻的则超过了万余个。从内容上来看，韩国俗谈涵盖了历史、地理、政治、风土人情等各个领域，因此了解韩国俗谈对了解韩国社会有很大的裨益。下面简单地介绍几个韩国俗谈，以供大家学习参考。

1. 금강산도 식후경. 人是铁饭是钢。

注释：金刚山是朝鲜半岛的名山之一，风景秀丽。“金刚山再美也得吃完饭后再观赏”，这句话讲的是吃饭的重要性，通常用于劝客人先进餐再做其它的事情。

2.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目不识丁。

注释：‘기억’是韩国文字中字母‘ㄱ’的读音。‘ㄱ’的形状像一把倒挂的镰刀，同时它又是韩文中的第一个字母。所以韩国人常用这句话来



形容人大字不识或目不识丁。

3.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因利乘便

注释：‘떡’（打糕）是韩国的传统食品，品种繁多，风味各异，是韩国人日常生活及祭祀、宴请宾客时必不可缺的食品之一。“看到打糕时顺便举行祭祀”这句话是指趁着一个好机会顺便把其他应做的事情也做了。



注释

1. 속담(俗談) [名] 成语, 俗话, 谚语

¶ 속담이란 민간에 전해 오는 쉬운 격언이다.

2. 꼬리 [名] 尾巴

¶ 고양이의 꼬리가 길다.

3. 서울 [名] 首都, 京城

¶ 서울을 가야 과거를 보지.

4. 덩석 [副] 猛然, 一下子

¶ 반가워서 내 손을 덩석 잡았다.

5. -는 통에 [惯用型] 用于部分动词后, 表示原因或根据

¶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 통에 일을 집중해서 할 수가 없다.

6. 있는 힘을 다하다 [词组] 竭尽全力

¶ 있는 힘을 다 해서 일해보겠다.

7. 땀이 흐르다 [词组] 流汗, 淌汗

¶ 날씨가 더우면 땀이 흐른다.

8. 찼찼매다 [自] 手足无措, 团团转

¶ 그 여자 앞에만 가면 말 한 마디 못하고 찼찼매기만 했다.

9. 단박 [副] 立刻, 马上

¶ 단박 그를 알아봤다.

10. -ㄹ/을 성싶다 [惯用型] 用于动词后, 表示推测、估计

¶ 내일은 눈이 올 성싶군요.

11. 살리다 [他, 使] 救活

¶ 그는 살리고 죽이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12. 소리치다 [自] 高喊, 高呼
¶ 강 건너편을 향해 소리쳤으나 전혀 반응이 없었다.
13. 그냥 [副] 就那么, 就那样
¶ 그냥 가져가거라.
14. 잠깐 [副] 暂时, 一小会儿
¶ 잠깐 다녀올게.
15. 약속(約束) [名] 约定, 诺言
¶ 약속 시간을 지켜야 한다.
16. 화를 내다(火~) [词组] 发火, 生气
¶ 자꾸 화를 내면 안 된다.
17. 시집살이(媳~) [名] 做媳妇, 当媳妇
¶ 시집살이는 누구에게나 어렵다.
18. 불쌍하다 [形] 可怜, 令人怜悯
¶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19. 나중 [名] 过后, 后来
¶ 이걸 먼저 하고 그건 나중에 해라.
20. 바보 [名] 傻瓜, 傻子
¶ 나는 어제 바보 같은 일을 했다.
21. 귀머거리 [名] 聋子
¶ 귀머거리는 고칠 수 없다.
22. 장님 [名] 盲人
¶ 장님은 앞을 볼 수 없다.
23. 병어리 [名] 哑巴
¶ 병어리는 손으로 말을 한다.
24. 그만 [副] 于是就
¶ 그는 나의 말에 그만 화를 냈다.
25. 쫓겨나다 [自, 被] 被撵出, 被赶走



¶ 집을 쫓겨난 개가 갈 곳이 없다.

26. 부끄럽다 [形] 羞耻

¶ 자신이 지은 죄를 부끄럽게 여긴다.

27. 꿩 [名] 野鸡, 山鸡

¶ 꿩고기를 사람들이 먹는다.

28. 깜짝 놀라다 [词组] 大吃一惊

¶ 대포 소리에 깜짝 놀랐다.

29. 요리하다(料理~) [他] 做菜, 烹饪

¶ 음식을 맛있게 요리한다.

30. 불리다 [自, 被] 被唱

¶ 아리랑은 예부터 불려온 노래다.



练习

1. 连线 (连接单词及其正确的释义)

단박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그만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앞을 못 보는 사람
잠깐	여자의 결혼 생활
서울	말을 못하는 사람
바보	매우 짧은 동안
귀머거리	그 모양 그대로
장님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곳
병어리	그대로 곧
시집살이	어리석은 사람

2. 填空

- 선비가 큰 바위 아래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다시 길을 떠나 () 곁에 놓은 지팡이를 찾() 손에 이상한 것이 잡혔다.
- 중이 “약속이 틀립니다.”하고 화를 내(), 선비는 중을 그곳에 남기() 떠났다.
- 어머니는 딸에게 “시집살이를 잘 하() 무슨 말을 들어도 못 듣() 같이 해야 한다.”하고 부탁을 했다.
- 이런 며느리를 보는 시집 식구들은 처음에는 불쌍하()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바보() 생각하게 되었다.
- 시아버님() 고향으로 돌아가는 며느리의 눈 앞()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3. 选择

1) 잠자고 있던 호랑이는 그 누군가 자기 () 덩석 쥐는 통에 눈을 번쩍 떴다.

- A.머리를 B.꼬리를
- C.다리를 D.발을

2) 선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 그렇다고 놓으면 호랑이가 단박 자기를 잡아먹을 성싶었다.

- A.무서워하는데 B.기뻐하는데
- C.놀라는데 D.떨떨매는데

3) 선비는 그 중에게 “스님, 스님, 저기 저 () 호랑이를 죽여주십시오.”하고 부탁했다.

- A.화살로 B.총으로
- C.나뭇가지로 D.지팡이로

4) 시집살이를 잘못해서 쫓겨나는 것은 여자에게는 제일 () 일이기 때문이다.

- A.부끄러운 B.기쁜
- C.하고 싶은 D.놀라운

5) 보고 싶은 부모님과 형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며느리는().

- A.슬펐다 B.싫었다
- C.기뻐다 D.걱정했다

4. 问答

1) 산속에서 선비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 선비는 왜 중을 그냥 두고 떠났습니까?



- 3) 딸은 시집살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 4) 시집 식구들이 며느리를 왜 쫓아냈습니까?
- 5) 며느리가 부른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5. 综合

- 1) ‘호미난방’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 2) “귀머거리 삼 년이요, 병어리 삼 년이라”이란 속담은 무슨 뜻입니까?
- 3) 선비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4)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봅니까? 왜?
- 5) 중국어에는 ‘호미난방’과 뜻이 비슷한 성구가 있습니까?

6. 用300字以内的中文综合叙述‘시집살이’的主要内容。



제 2 과 옛날 이야기

1. 청개구리

옛날 어느 청개구리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청개구리 형제들은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하루는 엄마 청개구리가 아이들에게 “오늘은 바람이 불고 날씨가 나쁘니까, 집안에서 놀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개구리 형제들은 “애, 우리 밖에 나가서 놀자.”하고는 모두 밖으로 나갔다. 또 하루는 비가 많이 왔다. 장마가 저서 여기저기서 야단이 났다. 엄마 청개구리는 아이들에게 “물이 많은 곳에는 도마뱀이 있으니, 가면 큰일이다.”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청개구리 형제들은 이번에도 “애, 우리 도마뱀 구경 가자.”하고는 모두 뛰어나갔다.

이렇게 늘 반대로만 하는 아이들 때문에, 엄마 청개구리는 자나깨나 걱정을 하다가, 그만 병이 났고 약을 먹었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엄마 청개구리는 죽은 다음에 산에 묻히고 싶었기 때문에 청개구리 형제들을 불러서 말했다.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물가에 묻어라.” 이 말을 끝내고, 엄마 청개구리는 그만 눈을 감았다.

그 때야 자기들의 잘못을 안 청개구리 형제들은 “우리들은 그동안 늘 어머님의 말씀에 반대로 했으니, 이번만은 어머님 말씀을 듣자.” 하고는 청개구리 형제들은 어머니를 산에 묻지 않고 물가에 묻었다. 그래서 지금도 청개구리들은 비오는 날이면, 어머니 무덤이 물에 떠 내려갈 것을 걱정하고 운다.



2. 콩쥐팥쥐

멀고 먼 옛날, 콩쥐라는 착한 여자 아이가 살았다. 콩쥐는 귀하게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를 얻은 다음부터는 구박덩이가 되었다. 새어머니는 팥쥐라는 딸을 데리고 왔는데, 둘은 몹시 심술궂고 사나웠기 때문이다.

하루는 새어머니가 말했다.

“팥쥐는 쇠호미로 모래밭을 매고, 콩쥐는 나무호미로 돌밭을 매거라.”

그러나 돌밭을 매던 콩쥐는 그만 호미를 부러뜨리고 말았다. 콩쥐가 서글피 울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검은 소가 나타나더니 호미를 주고 사라지는 것이었다.

콩쥐의 외가댁에서 커다란 잔치가 벌어진 날이었다. 팥쥐만 데리고 가며 새어머니가 말했다.

“콩쥐 넌, 베 육십 척 짜 놓고 와라.”

콩쥐가 열심히 베를 짜는데 아름다운 선녀가 나타나 말했다.

“콩쥐님, 베는 내가 짤 테니 잔치에 갈 준비나 하세요.”

그러고는 콩쥐에게 비단 옷과 꽃신을 주었다. 선녀는 베 육십 척을 금세 짜 놓고 사라졌다.

콩쥐는 선녀가 준 옷과 꽃신을 신고 길을 나섰다. 콩쥐가 냇물을 건너려는데 고을에 새로 오는 감사의 행차가 가까이 오고 있었다. 길을 피해주려고 콩쥐는 급히 냇물을 건넜다. 그러다 그만 꽃신 한 짝을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다. 그런데 콩쥐가 빠뜨린 꽃신에서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이를 이상히 여긴 감사가 꽃신을 주워 들고는 명령을 내렸다.

